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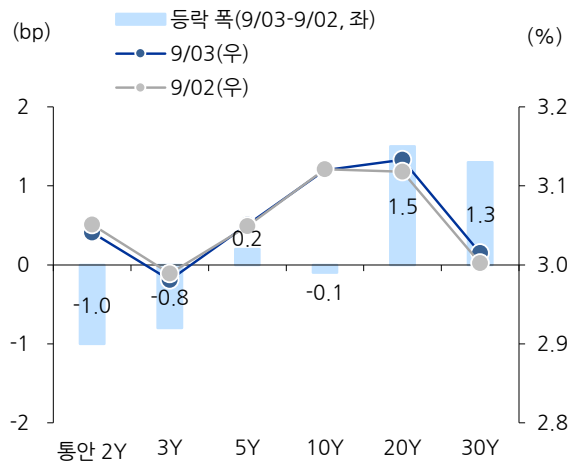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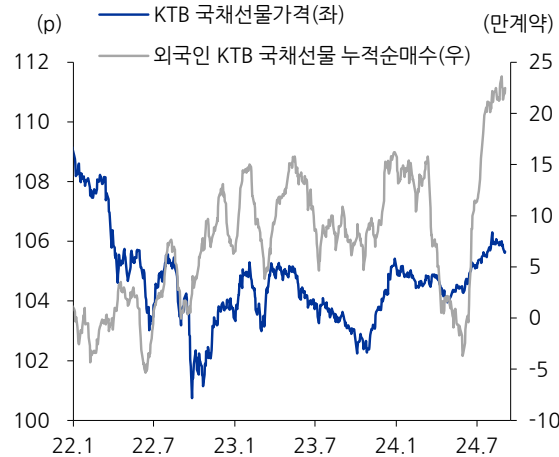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9/3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81%	-0.8	4.1	-17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120%	-0.1	4.7	-6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13.9	13.2	13.3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65	4.0	-20.0	23
	10년 국채선물(LKTB)	115.90	8.0	-51.0	4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865%	-5.5	-7.2	-38.5
	미국채 10년물	3.832%	-7.2	1.6	-4.7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-3.3	-1.6	-12.1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274%	-6.3	-1.5	27.0
	호주국채 10년물	4.003%	-0.9	9.4	4.9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보합 마감. 물가 안정, 한은 총재 발언 영향
- 8월 CPI, 5개월 연속 2%대 상승률 지속함에 따라 장 초반 채권 강세. 장 중 중단기물 중심 약세가 나타나며 3년 금리는 3%를 돌파했으나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금리 상단 제한
- 장 후반 한은 총재 발언은 강세 재료로 작용. 총재, 물가만 볼 때 금리 인하 고려하기 충분함을 언급. 이제부터 금융안정을 주요 변수로 볼 것임을 시사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제조업 부진한 여파
- ISM 제조업 지수, 위축국면 상에서 시장 예상치 하회. S&P 글로벌 제조업 지수도 전월비 급락. 경기침체 우려 자극되며 금리 하락
- 금리선물시장, 지표 발표 후 9월 빅컷 가능성을 더 크게 반영. 현재 38%내외 수준
- 금일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9/3일	1D	1W	YTD
원/달러	1,341.40	0.2%	0.8%	4.1%
달러지수	101.75	0.1%	1.2%	0.4%
달러/유로	1.104	-0.3%	-1.2%	-0.0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12	0.1%	-0.1%	-0.1%
엔/달러	145.49	-1.0%	1.1%	3.3%
달러/파운드	1.311	-0.2%	-1.1%	3.0%
헤알/달러	5.64	0.5%	2.5%	16.3%
WTI 근월물(\$)	70.34	-4.4%	-9.1%	-1.8%
금 현물(\$)	2,493.08	-0.3%	-1.2%	20.9%
구리 3개월물(\$)	8,988.00	-2.1%	-4.9%	5.0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00원 상승한 1,341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도 1,341.40원 마감.
- 전일 미국 증시 휴장으로 달러-원은 보합권에서 출발했으나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. 미국 주요 지표 대기 속에 수급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았지만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상승.
- 국내 증시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. 다만 네고 물량 유입이 환율 상단을 제한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위험 회피 심리 속 강세.
- 8월 ISM 제조업지수는 47.2로 시장 예상(47.5)을 소폭 하회. 그러나 신규주문지수가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음. 7월 건설 지출도 예상과 달리 -0.3%(M) 감소.
- 미국 경기 부진 우려에 증시도 큰 폭 조정을 받으며 위험 선호 심리 약화. 달러는 개장 전 엔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약세를 보였으나 ISM 제조업지수 발표 이후 반등.
- 우에다 BOJ 총재는 전일 향후 일본의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재확인.
- 금일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예정.예정.